

어둠의 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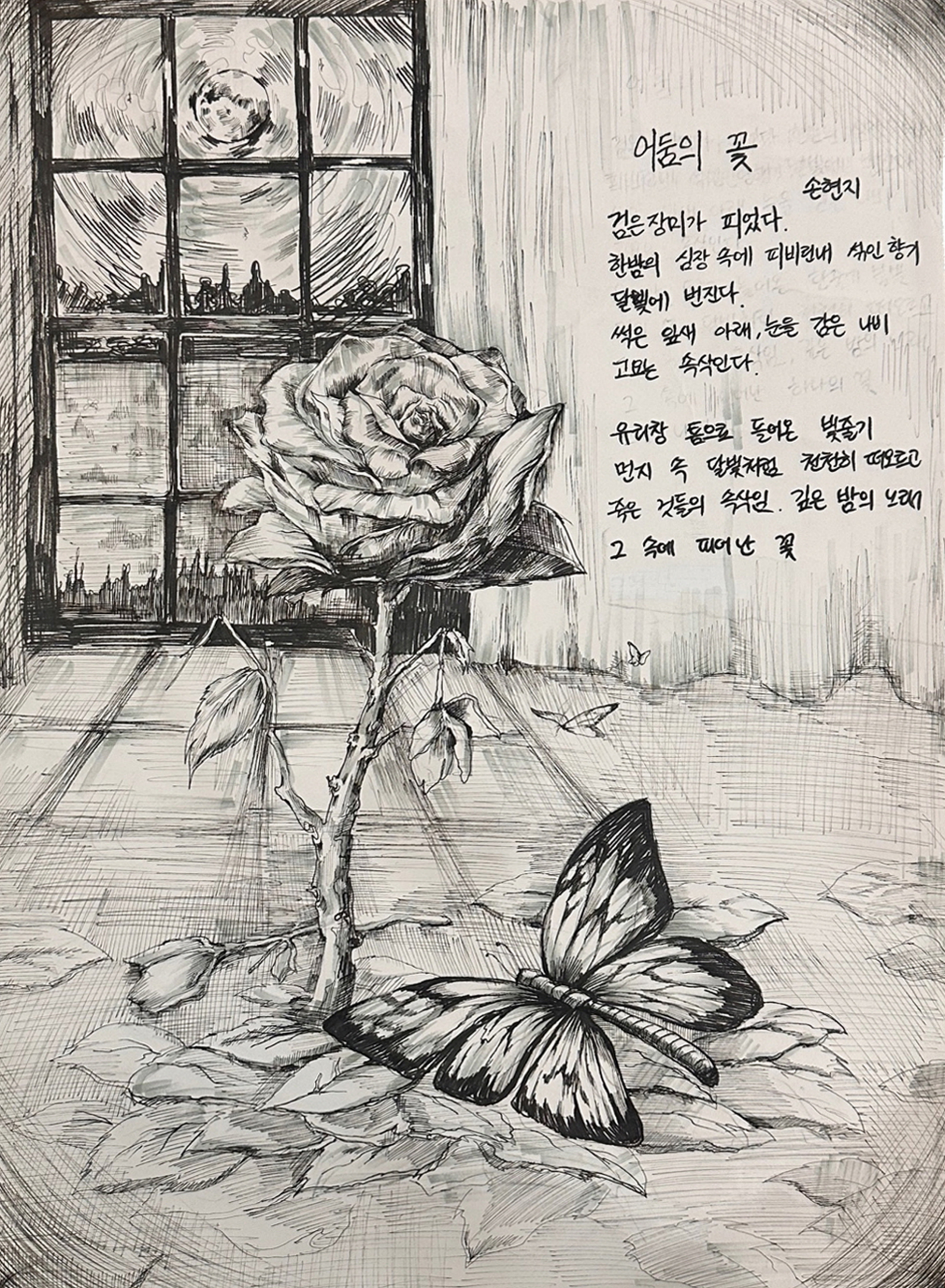
손현지

검은 장미가 피었다.

한밤의 심장 속에 피비린내 섞인 향기
달빛에 번진다.

씩은 앞서 아래, 눈을 감은 내
고요는 속삭인다.

유리창 틈으로 들어온 빛줄기
먼지 속 달빛처럼 천천히 떠오르고
죽은 것들의 속삭임. 깊은 밤의 노래
그 속에 피어난 꽃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악의 꽃 <보들레르>
작품 설명	악의 꽃에 영감을 받은 <어둠의 꽃>은 죽음과 부패,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생명의 흔적을 탐구한 작품이다. 검은 장미, 썩은 잎, 눈 감은 나비는 부패와 소멸의 이미지를 상징한다. 달빛과 먼지 속에서 피어난 장미는 희미한 생명과 기억의 흔적을 드러낸다. ‘죽은 것들의 속삭임’은 죽음조차 고요한 생의 일부를 느끼게 한다. 전체적으로 이 시는 보들레르처럼 아름다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세계이다. 절망 속에서 피는 한송이 꽃은 순수함과 생의 가능성을 상징한다.